

기념식 식순

집례 : 교화관장 김호성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권도문) 여성회본부 회장 이 흥 자
1. 천덕송 합창(기념송)
1. 기 념 사 교 령 이 정 희
1. 포 상
1. 천덕송 합창(포덕행진곡)
1. 심 고
1. 폐 식

■제2회 현도문화제

- 식전공연(오전10:30) 연합합창단의 축하공연
 - 인내천통일강연(기념식후) 정세현(前통일부장관)
 - 천도교중앙도서관 개관 봉고식(수운회관 15층. 오후 2시)
〈천도교중앙도서관 현판식 및 어린이도서관 개관〉
 - 동학전시관 새단장 특별기획전(수운회관 지하 1층. 오후 2시 30분)
- ※사인여천나눔행사(기념품증정)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암성사님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신지 제112주년이 되는 현도기념일입니다. 수운대신사께서 한울님께 무극대도를 받으시어 동학을 창도한 이래 계속된 순도와 탄압의 시간을 넘어서고, 동학농민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겨나가며 의암성사께서 천도교를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천도교를 신앙하고, 여전히 개벽세상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덕 46(1905)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를 살펴볼 때, 동학 천도교는 한편으로 포덕광제와 다시개벽이라는 후천 오만년의 역사를 계속해 간다는 연속성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선천의 기운이 마지막으로 창궐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격동 속에서 묵은 껍질을 털어내 버리고 새살을 돋게 함으로써 본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 후천개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와 개혁의 역사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도기념일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생각게 하고, 용시용활의 이치에 따라 처변함으로써 더욱 더 무궁한 천도의 대장정에 동참하는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천도교로의 선포는 도수천도道雖天道 학즉동학學卽東學이라는 수운대신사의 말씀에 깃들여 있는 현기玄機를 드러내는 위대한 사업이었으니,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는 수도와 연성이 하나의 바퀴라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다른 바퀴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치가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도교 선포가 발화점이 되어 동학은 천도교로 다시금 세상의 중심에 서고, 당시 지식인과 세상 사람들이 천도교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으며, 천도교에 의탁하여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바탕이 되어, 천도교단은 현도 이후 10여년 만에 300만의 교단으로 성장하고 민족을 영도하게 되었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의암성사의 대고천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좌절 이후 의암성사는 한편으로 교단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정세의 추이를 살피며 도의 장래를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갑진개화혁신운동을 영도하셨고, 그를

둘러싼 또 다른 시행착오들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근대적 종교로서의 천도교 현도를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천도교 현도는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련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국권은 일제에 빼앗기고 천도교는 유사종교로 취급되어 일제의 집중적인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암성사는 인재양성과 제도정비,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의 재구축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과 굴곡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뛰어넘는 도약의 순간이 바로 1919년 기미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덕 46(1905)년의 천도교 선포와 포덕 60(1919)년의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은 천도교와 세상을 이어주고 되살리는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침 천도교단이 중심이 되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이 “3.1운동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인 까닭도 그 사업이 100년 전 역사에 대한 회고와 상찬을 넘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일변의 기획정신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기미년 당시에 그러했듯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은 우리 천도교가 다시 한 번 이 시대 국가적 민족적 사업에 희생적으로 앞장서고 선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단에서 전개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바로 의암성사의 현도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해서는 의암성사 기념관을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현재 조직의 근간을 구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에 구성되어 의암성사 동상건립과 전기를 출판한 후 해산하였던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의 재건과 의암성사 기념관 건립은 의암성사의 현도정신을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현판식을 갖게 되는 천도교중앙도서관은 오늘의 천도교가 새로운 시대 환경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는 미래사회에서 천도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기구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산하의 방정환어린이도서관, 천도교자료실도 새롭게 도약하는 천도교의 내일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1월 24일 출범식을 개최한 ‘인내천운동연합’은 인내천 사상과 시천주 진리, 사인여천 윤리를 사회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 곳곳은 물론 해외에까지 건설되어가는 지부들은 그 지역의 교구 활동과 상보적으로 보국안민과 포덕광제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암성사께서 영도하신 천도교 선포는 수운대신사님과 해월신사님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시천주, 사인여천의 가치를 ‘인내천’이라는 가치관으로 재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동안 ‘인내천’은 천도교를 대표하는 용어였으며, 천도교를 가장 쉽고 설득력 있게 대중 속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내천이라는 말이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고 지고지순의 가치로 승화시켰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격’을 불가침의 가치로 여기고, 이에 장애가 되는 제도나 관습을 하나 하나 해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행복이 실현되었거나, 인간의 가치가 실제로 최고로 존중되는 사회가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인내천’의 가치 실현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하며 실천하는 제2의 현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희망과 비전만을 이야기하기에 오늘 천도교의 현실은 지극히 엄중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현도기념식에서 우리는 “대도중흥 비전 21”을 선포하고, 이후 그 구체적인 과제로서 “대도중흥 비전 21 실천강령”을 내놓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크나큰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한 순간의 결정이나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의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고 또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1년 동안의 실천 속에서 적지 않은 과제가 도출되었고, 또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는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12주년 현도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암성사께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후천의 인황씨(人皇氏)로서 천도교를 세상에 선포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금 회고하고, 무극대도의 밝은 내일을 새롭게 기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8년 12월 1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심고

권도문

「도」란 것은 사람이 한갓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남에 한울 성품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건마는 능히 그 성품을 거느리는 이가 적고, 누구나 집에서 살지 않는 이가 없건마는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적으니, 어찌 민망치 아니하리오.

성품을 거느리니 한울이 있고 집을 다스리니 도가 있는지라, 어찌 한울과 도가 멀다 하리오. 그러므로 한울은 만물을 낳고 도는 일을 낳나니, 어찌 물^物과 일이 또한 멀다 하리오. 물은 일을 낳고 일은 먹는 것을 낳는지라. 어찌 일과 다만 밥을 또한 멀다 하여 어길 바리오. 이러므로 한울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을지니라.

이런고로 한울은 화생하는 직분을 지키므로 잠깐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 만일 한울이 일분 일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변화 지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라. 이러므 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키어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오.

두려워하고 삼가함은 더욱 군자의 절중함이라. 군자는 능히 이 사단을 지키어 천도를 순히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대저 천도가 여기에 지날 바 없는지라, 삼가 지킬진저!

우리 대선생님께서 경신 사월 초오일에 강령지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 모심을 알게 함이요, 한울님 모심을 알면 가히 써 한울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오.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키면 수심정기 할 것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배천 역리함이라.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어찌 도를 멀리 구하며 능히 근본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리오.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족 이 있어 능히 동정함으로써 만사를 능히 다하여, 마시고 먹고 입는 바는 도시 다른 바 없건마는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으므로, 한울을 등져서 영대가 혼미하고 진실로 한울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지라.

군자는 이것을 능히 알고 순히 지켜서 잠시라도 떠남이 없으므로, 영대가 한울같이 신령하고 그 밝음이 일월같고 그 앎이 귀신같아서,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 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할지라.

근래에 들으니 혹 입도한 지 수삭이 못되어 발령이 되어 스스로 아는 바 있어 능히 도를 통하였다 하니, 진실로 민망하도다. 이같이 발령이 속히 되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의 가르침을 알게 함이니라.

이와같이 한울님이 가르치시는 이 운수에, 만일 실상을 알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지라, 삼가 지켜 어기지 말지어다. 만일 우리 선 생님의 도가 아니시면 어찌 창생을 건지리오. 이러므로 오직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것이라.

방금 성령이 현세하여 밝음이 엄숙한지라, 능히 근본을 알아 지키는 데에는 선생의 밝은 도로써 명하여 가르치심이 있어, 홀로 묘연한 사이에 받음을 알 터이요, 만일 이 이치를 어기는 사람은 만

일지공萬日之功이 있어도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몸은 선천이기先天理氣로 화생함이요 이 마음은 후천이기後天理氣로 받음이라, 이렇고로 세상사람이 한울님을 모시지 아니함이 아니언마는, 후천 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는 바,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면 오직 사람의 중함으로도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을지라, 이와 같이 죽음이 무상한 것은 그 간섭치 아니함을 반드시 알지라. 만일 지키는 사람도 이 운수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설령 정성이 지극할지라도 한울이 간섭치 아니할 터이니 깨닫고 생각하라.

이렇고로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바라. 복록은 의식이라 의식은 선천 후천이 다른바 없는지라, 밥은 한울님 은혜를 생각하고, 도는 스승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삼가 파혹하여 대도를 순성하라. 은혜를 생각한다 하여도 그 근본을 알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한울님의 감동함이 있으리오. 실상을 알고 지키어 대도 견성하기를 바라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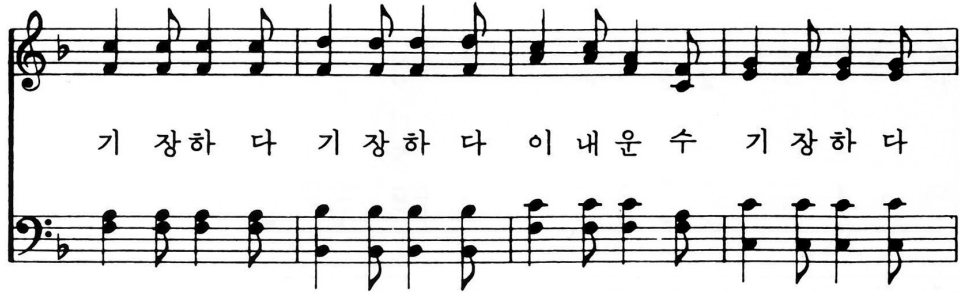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득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포덕행진곡

1. 우 리 들 - 은 - 개 벽 - 군 신 성 의 특 사
 2. 오 늘 날 - 은 - 포 덕 - 날 십 십 이 월 일 사
 3. 우 리 들 - 은 - 포 덕 - 사 창 생 지 도 자

수 운 선 - 생 - 심 법 - 을 계 승 하 여 서
 천 도 교 - 의 - 큰 문 - 을 활 쥘 고 서
 운 수 있 - 는 - 그 사 - 람 만 나 게 되 면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시 운 시 변 의 는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시 운 시 변 의 는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포 덕 을 하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하 자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포 덕 을 하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하 자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15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

.....

.....

.....

.....

.....

.....

.....

.....

.....

.....

.....

.....

.....

.....

.....

.....